



기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 김승욱(편집인, 중앙대 교수)

요즘 “일터 사역” 또는 “일터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터’는 영어의 marketplace를 번역한 것인데 ‘장터’나 ‘세상’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의 3대 비전 중의 하나도 “세상 속으로(into the marketplace)”입니다. 한때 교회가 성과 속을 분리하는 이원론에 빠져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와 ‘세상’을 분리했고, 성직과 세속직을 분리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이러한 구분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많은 크리스천이 이원론에 몰들어 예수님을 일주일 중에 일요일 하루에 가두고, 교회 공동체로 한정시키는 잘못을 범합니다. 다행히 최근 한국 교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신자는 각자의 일터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사, 학교 등 다양한 일터가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일터는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일터에서 소득을 얻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2월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여러 동역자들의 최근 활동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방한한 폴 스티븐슨 박사 등의 강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기업이 크리스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기업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이고 중요하지 않지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직장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만이 중요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업 자체도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기업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생

각해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중의 하나인 지성으로 인류는 문화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그 과정에 인류는 기업제도를 발명하여 오늘날의 물질적 번영을 이룩하였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중에 생산성의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일어난 시점이 바로 산업혁명입

본주의는 인간노동을 상품화시켰으며 돈을 숭배하게 하였지만,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이던 인류를 -비록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기아와 전쟁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많은 설명이 제기되었지만, 최근에 주목을 받는 이론은 '기업의 확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인류를 가난에서 구한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오늘날에도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반대도 많았습니다. 인간의 노동이 기계의 부속품이 된 소외현상을 비판한 카를 마르크스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은 기업을 착취가 벌어지는 현장으로 이해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세속화의 대명사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연 기업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인간은 물질적 생활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타락한 이 세상의 삶에서 사랑으로 베풀어
궁핍한 자가 없는 사회를 이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동차에 달리게 하는 엔진이 있고,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있듯이
기업은 생산의 주체이고 나눔은 정부와 각 개인의 몫이다.**

니다. 그 이전에는 생산성의 발전이 거의 없었고, 생산요소는 토지와 인간의 육체노동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남들보다 잘살기 위해서는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공장이 세워지고 기업이 발달하면서 토지의 중요성이 떨어짐으로-물론 부작용도 있었지만-전쟁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에 두 차례의 큰 전쟁이 있었고, 국지전도 끊이지 않았지만, 지구 전체적으로는 전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산업혁명과 그 이후에 일어난 자

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기업의 본질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한 학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널드 코스(Ronald Coase)입니다. 그는 청년기인 1937년에 "기업의 본질"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199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인류는 자급자족 경제에서 상품경제로 발전했습니다. 상품경제는 시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시장 활용에는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느 가게가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지 알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시장활용에 드는 비용을 코오스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장활용의 유익이 거래비용보다 크면 시장이 확산되지만, 반대로 거래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시장이 위축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가 망한 후에 치안을 감당할 국가권력이 없어지자 유럽에서는 시장이 사라지고 자급자족체제인 장원경제가 되었습니다.

생산할 때 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동업(partnership)입니다. 노동과 자본 등 서로 다른 생산요소를 보유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 하에 동업해서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그런데 이 시너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흥

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거래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거래비용이 너무 클 때 또한 동업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세기 대항해 시대가 열리자 유럽에서는 삼각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얻었습니다. 1560년에 최초로 이를 성사시킨 드레이크는 무려 4,000배의 투자 수익을 올려서 엘리자베스 여왕과 반씩 나누어 가졌는데, 이것은 당시 영국의 1년 지출과 맞먹는 액수였습니다. 이렇게 큰 이익이 남는 삼각무역이었지만 동업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동업의 세 주체인 선장과 선주, 그리고 상인이 서로 자기 몫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삼각무역은 위험이 매우 높는데, 그 위험부담의 대가를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협상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크면 동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시장참여자들의 흥정이라고 하는 자발적 합의과정, 즉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서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시너지 창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즈음에는 노사가 갈등을 빚으면 ‘보이는 손(visible hand)’인 정부가 나서서 조정과 중재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손이 없었

던 시대에 어떻게 이러한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코오스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앞의 예에서 삼각무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업이 깨어지게 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느 한 측 - 예를 들면 상인 - 이 나서서 배를 사고 선원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사의 출현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인은 배값을 치렀고, 선원들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 항해에서 발생할 모든 위험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 이익이 발생할 때 모든 이익을 자신이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모험가가 바로 기업주이고 이러한 모험가에 의해서 기업이라는 조직이 생겨납니다. 후에 한 사람이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제도가 생기고 최초의 주식회사가 바로 1623년에 생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코오스는 이처럼 기업이 발생한 이유를 시장을 이용하는 거래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흥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즉 거래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시장실패가 극복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더욱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오늘날 시장경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카를 마르크스는 기업을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라고 파악했지만 코오스는 기업을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 있을까요? 노동자가 너무 많았던 시절에는 근로자가 약자입니다. 그래서 노동삼권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협상력이 노동시장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할 때는 고용주가 협상력을 갖고, 일자리가 남을 때는 근로자가 협상력을 갖습니다. 한국은 일자리에는 일하겠다는 사람이 넘치고, 나쁜 일자리는 국내 근로자를 못 구해 외국 근로자들의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일하려는 사람 사이의 상대적 희소성에 따라 누가 시너지를 더 가져가는지가 결정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인간은 물질적 생활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삶에서 사랑으로 베풀어 궁핍한 자가 없는 사회를 이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동차에 달리게 하는 엔진이 있고,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있듯이 기업은 생산의 주체이고 나눔은 정부와 각 개인의 몫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W**